

청소년의 정체형성을 위한 환경요소들에 관한 종합적 연구*

Synthetic Study on Environmental Factors for the Identity Formation of Adolescents*

인하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교수 이은희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부교수 나영주

건국대학교 차세대혁신기술연구원 의상학과

교수 황진숙

(재) 서울여성 교육사업부

부장 고선주

협성대학교 교양학부

전임강사 박숙희

Dept. of Consumer & Child Studies, Inha University

Professor : Lee, Eun-H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Inha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Na, Young-Joo

Dept. of Clothing & Textiles, NITRI, Konkuk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Hwang, Jin-Sook

Division of Education, Seoul Women's Foundation

Program Director : Koh, Seon-Joo

Dept. of Liberal Arts, Hyupsung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 Park, Sook-Hee

◀ 목 차 ▶

I. 문제제기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결과 분석 및 해석

V.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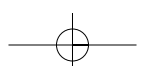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tegrated effects of family, school, internet, and mass culture factors on the identity formation of adolescents. Specificall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categorize adolescents into groups by what

Corresponding Author: Eunhee Lee, Dept. of Consumer & Child Studies, Inha University, 253 Yonghyun-dong, Nam-gu, Incheon, 402-751, Korea Tel: 82-32-860-8115 Fax: 82-32-874-8115 E-mail: eunhee@inha.ac.kr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2-042-C00108)



they do during the time except the life in school and to investigate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regarding the identity information(body image, self-esteem, self-identity) and the influences of environmental factors on identity formation of adolescent. The study distributed questionnaires to middle and high school adolescents of five representative cities in South Korea. The total respondents were 2240(960 from Seoul/Kyongki, and 320 each from Taegu, Pusan, Kwangju, and Taejon). The response rate was 98.7%. The data were analyzed by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ANOVA, Duncan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n adolescents were segmented into five groups : TV preference group, computer preference group, friends and family involvement group, homework and study preference group, and study institute involvement group). The five group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regard to body image pursuit, self-esteem, and self-identity. The body image pursuit, self-esteem, and self-identity of adolescen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regard to each environmental factors, in each adolescent group.

주제어(Key Words): 청소년(adolescent), 환경요소(environmental factors), 신체이미지(body image), 자아존중감(self-esteem), 자아정체성(self-identity)

1. 문제제기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동하는 기간으로 심리적, 육체적, 정서적인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 새로운 자아정체감의 정립이 요구되는 시기이다(강혜원, 1996; 김희화, 김경연, 1998). 자아정체감이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며, 시간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어도 지속되는 나의 독특성을 확립하고 인지하며 자기 나름의 인생관을 확립하는 것이다(Erikson, 1968). 또한 청소년은 신체와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변화된 자신의 신체를 자각하고 새로운 신체이미지를 형성한다. 청소년기의 신체에 대한 평가는 청소년의 정체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성인이 된 후에도 자아개념 및 사회성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윤진, 1993). 최근 우리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기준은 젊고 날씬한 서구화된 모습이며, 이상적인 마른 신체이미지가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됨에 따라 개인의 가치관과 신체이미지는 이에 큰 영향을 받으며 신체와 외모에 관심이 집중되는 청소년기에는 그 영향력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조선명, 고애란, 2001).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주체형성에 큰 역할을 하는데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심리적 부적응 및 비행에 쉽게 빠져든다(김하연, 오경자, 윤진, 1991; Edward, 1996).

주체란 사물의 주된 부분 또는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국어사전, 2005). 따라서 청소년의 주체형성이란 청소년이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의 형성에는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신체이미지가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청소년기의 신체이미지, 자아정체성,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주체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보다는 단편적으로 다룬 것이 대부분이다(김하연 외 2명, 1991; 김희화, 김경연, 1998; 조선명, 고애란, 2001).

한편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들로는 가장 밀접하고 오랜 시간 상호작용을 하는 가족, 학교 이외에 오늘

날에는 대중문화와 사이버 환경의 영향이 매우 커졌다.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에 대한 이해는 현실세계에서 청소년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현실세계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지만 사이버 공간의 경험은 세대간에, 또는 사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산업사회나 그 이전 공동체가 가졌던 사고방식이나 윤리의식으로 현 사이버 공간 속에서 형성되는 청소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컴퓨터 상에서 삶과 생활, 이상과 현실, 생활습관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가상 대인관계에 익숙하고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의 문화교류란 상대방의 모습에 좌우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 교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실제와는 다른 자신의 모습을 찾고 만드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동일한 인간, 동일한 관계, 동일한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고정적인 인간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사이버 문화, 대중문화, 가족, 학교 등의 주변 환경들이 실제 정보사회의 본격적인 주체인 청소년의 삶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작용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형편이다. 즉, 청소년의 대중문화, 문화산업에 관한 연구(김옥순 외 2명, 1994), 가족해체와 폭력에 관한 연구(옥선화, 1998), 세대단절에 관한 연구(고선주, 2000), 청소년의 사이버공간에 관한 연구(윤영민, 2001) 등 사이버 문화, 대중문화, 가족, 학교 등 청소년의 환경요소가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은 현재까지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환경요소 각각의 영향을 다룬 단편적인 연구들로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주체형성에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자아정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이를 파

악하고자 했으며, 사이버문화와 대중문화의 범람 속에서 또한 가정과 학교의 요구 속에서 현시대의 청소년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체성을 확립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의 주체성에 대한 사이버문화, 대중문화, 가족, 학교 등 다양한 환경요소들의 영향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는 청소년을 단일한 특성의 동질 집단으로 다룬 경향이 있었으나 본 연구는 청소년을 동질적 집단으로 보지 않고 현시대의 문화지형 속에서 다양한 청소년 문화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청소년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로 주체성을 경향을 파악하고 이에 각 환경요소들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의 유형화는 생활시간과 생활내용에 따라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하루의 일과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학교생활 이외의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생활시간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청소년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청소년 관련연구들은 단편적이었거나 편중된 성인의 시각으로 청소년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경향이 농후하다.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지적, 도덕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사회체제에 편입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시각이 교정되어야 한다. 청소년을 단순히 성인의 축소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독특한 문화와 시기적 특성을 지닌 권리의 주체로서 파악해야 한다. 즉 청소년이 부족하거나 미숙하다고 파악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다른 특성, 욕구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해야 한다(최운진, 구창모, 정문성, 1991). 특히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주체형성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루거나, 사이버문화의 도래에 따른 환경 요소와 청소년의 주체 형성을 연결시킨 종합적인 연구는 매우 미비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주변환경 요소를 종합적, 학제적으로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세밀한 분석적 연구가 필요하다. 즉 그들의 일상적 삶의 중심이 되는 대중문화, 가족, 학교, 사이버문화가 만나 만들어 내는 문화적 지형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문화의 지형을 파악하고 가상공동체의 특성과 연관지어 청소년의 주체형성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새로운 주체를 형성해 가는 청소년의 진정한 모습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환경 요소

1) 가족환경

청소년 초기는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율성을 획득하려는 욕구로 인해 부모와 갈등이 증가하고 세대차로 인해 부모자녀 관계가 소원해지기 쉬운 시기이므로 부모자녀간 상호작용 방식이 중요해진다. 즉, 자녀가 부모에게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고 부모로부터 감정이입적이고 지지적인 반응을 받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의 발전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다(김희화, 김경연, 1998).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권혜진, 윤종희, 1993)에서는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희화와 김경연(1998)은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고민이나 갈등 그리고 문제 상황에 대해 상호간에 자연스럽게 대화로서 해결해 나갈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초기 청소년기에 불안정한 자아를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모갈등은 부모자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과 적응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최근 부부사이에 불화와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부 갈등을 더 이상 정상적인 부부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부부 당사자들의 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녀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적응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부의 갈등과 불화로 인해 부모가 느끼는 스트레스, 적대감, 좌절, 무기력감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부모간의 갈등은 자녀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부부갈등을 부모에 의해 보고된 갈등보다는 부모갈등에 대한 자녀의 주관적인 지각과 해석이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보다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자녀문제의 예방적 측면에서 부모의 부부갈등을 부모가 보고한 갈등의 존재여부보다는 부모갈등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자녀의 인지적 해석과 평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추세이다(Grych & Fincham, 1990).

가족자부심은 가족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자랑스러워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자부심은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가족자부심을 독립적으로 측정하는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가족자부심의 영향과 관련된 연구로, 정혜인(1998)은 부모의 실업이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실업가정과 일반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비교해 본 결과 실업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밝혔다. 이국길과 이미숙(2003)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4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3호, 2006

의 자아존중감은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즉 가족분위기가 화목하다고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반면, 가족분위기가 화목하지 못하다고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낮았다.

2) 사이버 환경

현재 청소년들의 중요 환경인 사이버공간에서는 연령, 지위 등이 불필요하며, 스스로 누구인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자신의 자아를 가상공간에서 창조해 낼 수 있으므로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들은 방황하는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사이버세계와 현실세계의 조화, 균형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조영승, 2000).

청소년기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일컫는 인터넷 중독은 일상생활에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즉,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 개인으로 하여금 학업적·직업적·관계적 손상을 일으킨다. 인터넷 중독자들은 현실에서 얻지 못하였던 그 무엇을 온라인에서 찾게 되었고, 이것이 이들로 하여금 인터넷에 몰입하게 하였다. 주로 무한한 정보, 위험 없는 대인관계, 그리고 익명성에 끌려 인터넷에 빠져들게 되며, 결국 이들은 현실의 피상적인 대인관계를 극복하고, 현실에서 얻지 못하였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인터넷에 몰입한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증은 해를 거듭하면서 급속히 늘어 14.3%(2000)에서 37%(2001)로써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원, 2001). 인터넷중독의 유형은 크게 사이버섹스중독, 사이버관계중독, 네트워크강박증, 정보과몰입, 컴퓨터게임중독 등으로 나뉜다. 인터넷 중독의 관련변인으로서 성별, 사용시간, 사용목적, 친구 수, 자아존중감, 가족지도, 일반적 비행정도 등을 들 수 있다(윤영민, 2001; 김혜원, 2001).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독증에 걸릴 확률이 높으며, 사용시간이 길수록, 또한 사용목적이 정보보다는 통신용도로, 통신보다는 오락 용도로 사용할수록 중독증세를 보인다(윤영민, 2001). 또한 친구 수가 적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가족지도가 낮을수록, 일반적 비행정도가 클수록 인터넷 중독증의 확률이 높았다(김혜원, 2001). 따라서 청소년의 과제로서 사이버세계와 현실세계의 조화,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조영승, 2000).

특히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더 충동적이며, 문제해결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고, 문제해결 능력도 떨어진다. 또한 반응 유능성, 대인협상 전략이 낮으며,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산만하고 타인을 비난하며, 지나치게 상황만을 중요시하거나, 지시적이고 명령적인 초 이성형 의사소통 유형일 수 있다(이소영, 2000).

3) 학교환경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가정 다음으로 대단히 중요

한 의미를 갖는 장소로서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된다. 학교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의 성원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 가치관을 습득하도록 돕고, 상급학교 진학준비 교육과 직업준비 교육을 하는 곳으로서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교의 어떠한 요소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교에서의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형태, 1989; 박아청, 이승국, 1999; 배재현, 1993). 이들 연구에서는 주로 학교 친구간의 관계가 특히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보다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사실에서 그 이유를 추출하고 있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을 시도한 박아청, 이승국(1999)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 친구의 영향에 비해 교사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학교 환경이 청소년의 주체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4) 대중문화 환경

청소년기는 아직 가치관 정립이 미성숙한, 심리적 공백과 갈등의 시기로 외부적 자극으로부터 쉽게 자신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받는 시기이다(권병덕, 2000). 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가치관 형성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 속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텔레비전과 인터넷이 만든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김현경, 2002; 홍희자, 1997). 대중매체의 영향은 청소년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시간 접촉 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있어 청소년들의 정신적 영역에 심리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권병덕, 2000).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갈등, 입시 중압감, 호기심, 친구의 영향 등으로 대중매체와의 접촉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며(권병덕, 2000), 가족간 갈등이나 부모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대중매체를 대처방안으로 이용한다고 하였다(최우신, 1999). 대부분의 연구들은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매체가 TV이며(김동철, 1996; 김혜경, 2000; 최우신, 1999), TV가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김동철(199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폭력물이나 음란물을 가장 많이 접촉하는 매체가 비디오이고 그 다음이 TV로, 이들 영상매체들은 청소년들의 가치 형성에 매우 유해한 것으로 나

타났다. 김혜경(2000)은 대부분의 청소년이 방송음악에 심취해 있으며 과중한 입시 압박과 출세주의, 부족한 문화생활을 방송음악에 의존하여 일시적으로 도피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김현경(2002)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응답한 대중매체는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이고 그 다음이 TV라고 하였는데, 이는 요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인터넷을 제외하고는 대화가 되지 않을 만큼 컴퓨터가 중요한 의사소통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2. 청소년의 주체형성의 구성요소

주체란 사물의 주된 부분 또는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국어사전, 2005). 따라서 청소년의 주체형성이란 청소년이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의 형성에는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신체이미지가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주체형성의 구성요소로서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자아정체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신체이미지

신체이미지(body image)란 인간이 자신의 신체를 마음속에서 떠올려 보는 것으로(Gergen, 1971), Kalish(1975)에 따르면 신체이미지는 자기개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많은 학자들은 신체이미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신체만족도를 사용하였는데, 신체만족도란 인간이 자신의 신체 각 분야에 대해 만족 또는 불만족하는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수의 연구들에 의하면 신체만족도는 개인의 자아존중, 자기개념, 자기이미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만족할수록 자신을 존중하며, 신체에 불만족할수록 자신감을 잃고 자신을 비하한다는 것이다. 현대에는 특히 외모의 매력에 인간관계에서 중시되기 때문에 외모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뒤처지게 되면, 이는 신체불만족으로 연결되고 결국 개인의 자아존중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Salem(1990)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 척도에 신체만족도,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의 중요성,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로부터의 거리감등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의 중요성은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신체와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변화된 자신의 신체를 지각하고 새로운 신체이미지를 형성한다. 청소년기의 신체에 대한 평가는 청소년의 정체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성인이 된 후에도 자아개념 및 사회성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윤진, 1993). 현대의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는 극도로 마른 체형으로 묘사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체형의 소

유자라고 해도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와 비교로 인해 왜곡된 신체이미지를 갖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 대중문화의 상당 부분을 접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인상을 지각하며 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는 이상적 신체의 이미지 속에서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형성하고 이는 행동을 유발하는 잠재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의 신체적 외모의 중요성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강화되고 있고, 매스미디어를 통해 촉진되는 개인의 태도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Heinberg, Thompson & Stomer, 1995). 최근 우리사회에서 마른 신체이미지가 이상적인 이미지로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됨에 따라 개인의 가치관과 신체이미지는 이에 큰 영향을 받으며 신체와 외모에 관심이 집중되는 청소년기에는 그 영향력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조선명, 고애란, 2001). 그러나 가정환경, 사이버 환경, 학교환경 등이 신체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한 개인의 내면적 가치로부터 시작되는데, 기본적인 영향이 인간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를 가능해주는 기분의 감정으로써 이러한 자각에 의해서 우리는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그 가치를 부여한다(강석기, 2003). 자아존중감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살핀 연구(강석기, 2003)에 의하면, Rosenberg는 자신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자아존중감을 정의하였으며, Maslow는 자아존중감이 인간의 강력한 욕구 중 하나임을 주장하였다. Well과 Marwell은 자아존중감이 건강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Bandura는 자아존중감이 개인들이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아는 태어날 때와 같은 상태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발달하게 되며 사회적 경험과 활동인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자아를 이드, 에고, 수퍼 에고 등으로 세분화시킨 프로이드는 자아와 사회를 갈등의 관계로 보았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과 평가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종종 자아개념과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자아개념은 판단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련의 기술적인 개념으로서 자신의 특성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감정이 포함되지 않은 반면에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특성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포함한다(Mussen, Conger, Kagan, & Huston, 1984; 최보가, 전귀연, 1993서 재인용)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으로 가는 인간발달의 과도기

로서 다양한 사회경험과 지식의 축적을 통해 현실에 대한 인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여러 면에서 평가하고,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 자아존중감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위의 평가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때, 청소년의 주위환경이 자아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일은 청소년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1) 가정환경과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받는 존중, 수용, 관심 등에 의해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하게 된다(박경리, 김경연, 2001). 가정 내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받게 되는 지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된다.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그가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Choen & Hoberman, 1983) 유능감이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키며(Bowlby, 1969) 좌절과 변화에 대해 인내하고 극복하는 능력을 증진시켜줌으로써(윤소연, 1993)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자아개념이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대체로 어머니의 수용 및 온정이나 애정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Richards, Gitelson, Petersen, & Hurtig, 1991; Sears, 1970).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연구결과들간에 상당한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여아보다 남아의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Hoelter, 1984; Margolin, Blyth, & Carbone, 1988)이 보고된 반면에, 남아보다 여아가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들(Felson & Zielinski, 1989; Gecas, 1971)도 제시되고 있다.

청소년이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경우, 또래에 의한 괴롭힘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손상되는 것과 같은 또래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할 때 부모의 신속하고 반응적인 도움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청소년인 경우, 대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신체·심리적인 발달이 다소 뒤지므로 여학생들에 비해 부모에게 좀 더 의존적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부모-자녀관계에 의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최미경, 도현심, 2000).

(2) 학교환경과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힘, 좋은 자

질 등에 주목하며,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결함이나 약점, 좋지 못한 자질에 주목한다(Baumeister & Tice, 1985).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타인은 일반적으로 또래집단이나 동료 급우들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들의 영향은 부모보다 훨씬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이차선, 1998). Scanlan(1982)에 의하면, 청소년은 자신의 가치수준을 알아내게 위해 자신의 능력을 또래의 능력과 비교하는 '반영된 평가(reflected appraisals)'와 '사회적 비교'를 하는데 이것은 청소년 초기에 더욱 심해진다고 하였다(남승희, 1993 재인용).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현상은 청소년기의 우울증이다. 괴롭힘 가해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살펴 본 이해경과 김혜원(2000)의 보고에서 두 변인은 부적 관계로 나타나 가해를 많이 받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있다. Erickson(1959)은 높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의 확립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인생의 발달 주기와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은 청소년기의 여러 기능들, 즉 개인 상호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나 낮은 불안과 학업성취 등과 관련지어 여러 연구에서 설명되고 있다(이차선, 1998).

(3) 사이버환경과 자아존중감

사이버환경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나, 박유진, 김재휘(2005)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연구하였다. 그 결과 사이버공간에서의 커뮤니티를 통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자아존중감은 또한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일상에서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4) 대중문화 환경과 자아존중감

대중문화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관련된 연구로서 김병렬(1990)은 우리의 대중문화 내용이 청소년들에게 사회성이 결여된 유희적이고 감상적인 세계로, 또한 허영, 소비, 쾌락, 현실도피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중문화에서 보여지는 성관계, 범죄관계, 폭력관계 등의 내용들은 청소년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미경(2002)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대중문화와 관계되어 유행하는 스타일의 옷이나 세련되게 표현한 외모, 유행하는 악세사리에 관한 수다는 모두 그들에게 정보가 되어 남들보다 더 나은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볼 때 대중문화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자아정체성

자아정체성(ego-identity)은 자아의식의 연속성과 동일성을 말하며 이를 지속하고 고양시켜 나가는 자아의 자질(ego-quality)이다. 자아정체감이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며, 시간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어도 지속되는 나의 독특성을 확립하고 인지하는 것이다. 자아 정체감이 확립되면 자기 나름의 인생관이 확립되며 사명감이 의식된다. 이를테면 현실사회에 대하여 자기의 역할, 입장 등을 자각하게 되며 자존심도 강해진다. 타인보다 자기우월을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의 장단점도 분별하게 된다. 부모, 타인에게 반항하는 태도는 사라지며, 타인이나 외부상황을 통찰하게 된다. 특히 이성에 대해 상호 존중하는 태도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Erikson, 1968).

자아정체감 척도를 개발한 Dignan(1965)은 자아정체감은 “어떤 매카니즘에 의해 미리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성장과정에서 자기를 비추어 볼 수 있는 대상으로부터 반영되는 종합적인 자기상 또는 자기를 묘사해주는 자기창조적 이미지들(self-referent images)의 복합”이라고 정의하고, 그 구성요인을 자기감각, 독자성, 자기수용, 역할기대, 안정성, 목표지향성, 대인관계로 규정하였다. Hjelle과 Ziegler(1976)는 “여러 가지 동일시와 자신의 능력, 사회적 역할 속에서 하나의 자기를 찾으려는 자아통합의 과정이며 어떤 집단과의 동일시, 이념, 신념, 직업에의 관여를 통해 자신을 규정하려는 것”이라 하였으며, Waterman(1982)은 자아정체감 개념의 복합성을 지적하면서 자아정체감의 구성요인들로 ①명확하게 자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 ②인생의 목표, 가치, 신념을 정립시키기 위한 관여 ③관여한 것을 실행하기 위한 실제적 행동의 존재여부 ④정체감에 대한 대안점들을 찾기 위한 범위에 대한 고려 ⑤자기수용의 정도 ⑥개인적인 독특성에 대한 감각 ⑦개인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감 등을 언급했다.

이에 비해 박아청(1990)은 자아정체감에 대해 “개체로서의 실체인 자아 또는 자기를 중핵에 갖고 있으면서 그 자아가 변화하는 신체적, 대인적, 사회적, 문화적, 국가적, 민족적, 정치적, 역사적인 과정과의 상호작용을 겪어 나가는 동안에 어떤 일관성 있는 자기를 형성해 가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개인적, 사회적인 모든 국면에 걸쳐 자아정체감이 형성됨을 지적한다.

한편 Marcia(1980)은 자아정체성을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으로 보고 “충동, 능력, 신념 및 개인생활사 등의 자체발생적인 내적 체계인 자기구조”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구조가 잘 발달된 사람은 자신의 장단점과 다른 사람과의 유사성 및 독특성을 잘 깨닫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찾으려 하고 외적자원에 의존하여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흥미적인 사람이 된다(Cote & Levine, 1988). 즉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할 경우 이후의 시기에 성역할, 권위, 존재가치 등에서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자아탐색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경우 비행 또는 범죄청소년에게서 볼 수 있는 부정적인 정체성(negative identity)을 형성하는 경우도 나타나기 때문에 청소년기를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한 결정적 시기로 볼 수 있다.

청소년기에 이르러 자아정체감 형성이라는 발달과업이 중시되고 크게 부각되는 이유는 의존적인 아동기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책임감있는 성인으로서의 준비가 이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초기 청소년들은 급격한 체중의 증가, 신체의 변화, 성적인 성숙과 관련된 내적, 외적 변화에 직면한다. ‘성장의 폭발’ ‘성장가속화 현상’이라고도 불리우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욕정의 증가를 낳아, 잠복기에 가지고 있던 자아와 욕정의 평형을 붕괴하여 불안정과 혼란을 야기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제2차 성징의 성숙이 진행됨에 따라 청소년들은 지금까지의 동일시의 유용성이 제한되거나 상실되게 되어, 더 이상 아동으로서의 정체감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새로운 정체감 형성 및 확립이 요구되어진다. 즉, 아동기까지 형성된 자아의식과 상반되는 또 다른 자아상(self-image)이 모색되면서 장차 한사람의 성인으로서 자신이 갖게 될 통합된 일반적 자아를 형성하고 추구하게 된다. 제2의 탄생이라는 이 중대한 과업을 Erikson(1968)은 유예기간(pscho-social moratorium)이라 하였다. 이것은 당분간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에서 면제되고 국가,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의 결제를 사회로부터 유예받는 시기를 말하며, 사회가 고도로 문명화되면 될 수록 성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양이 증가함으로 인해 이 기간의 존재가 더욱 중요시되고 이 기간이 점차 연장되는 추세이다.

(1) 가정환경과 자아정체성

자아정체감 형성의 발달과정과 관련된 가정환경 변인으로 크게 물리적 환경측면에서는 가족의 구조 및 사회경제적 지위 환경이 주로 다루어지고, 심리적 환경으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과정환경을 다루고 있다. 가족구조나 가족유형을 다룬 연구들을 보면 홍성애(1988)의 연구에서는 정상가정의 청소년이 결손가정의 청소년보다 자아정체감 점수가 높다고 보고한 반면, 박은아(1993)와 송설희(1993)의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Oshman과 Manosevitz(1974)은 부의 부재를 경험한 남자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비교집단보다 낮으며, 정서적으로 부정적이고 불안정한 태도를 갖는다고 하였으며, Waterman(1982)은 이혼한 가정의 남자 대학생들이 자아정체감이 낮고 정체감 혼미수준을 보인다고 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아정체감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김유자, 1996; 유명환, 1989; 조원영, 1990)에서

는 전반적으로 자아정체감과 상관 없거나 아주 낮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urner(1990)의 연구에서는 부의 교육과 가정의 월수입이 자아정체감의 예측변수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가정의 물리적환경보다 심리적환경이 자아정체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강미애(1991)는 농어촌 지역의 자아정체감 연구에서, 자아정체감은 가정분위기가 원만할수록, 부모자녀관계가 친애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잘 발달된다고 하였다. 권순명(1993)과 송설희(199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수용적 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는 거부적인 양육태도에 비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유자(1996)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을 받고 있다고 지각한 아동들은 자아정체감 발달에 있어 보다 진보됨을 보였다고 하였다. 김형태(1989)는 가정의 자율적 분위기와 가족상호간의 태도가 자아정체감과 높은 상관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Bosma와 Gerrits(1985)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가정의 기능과 자아정체감 성취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는데, 청소년들에게 자율권이 많이 부여되고 부모가 그 자율권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경우 자아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Marcia(1980)는 자아정체감과 가정의 과정환경간의 연구에서 자아정체감 조기완료자들이 부모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음이 나타났고, 자아정체감 혼미를 보이는 청소년들은 가족과 소원하게 지내며 이들의 부모는 무관심하고 게으르고 거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Turner(1990)는 가정환경 중 종교적 지향성과 가족의 응결력 및 조직력은 자아정체감의 예측변수인 반면 가족의 성취지향성은 유의한 예측변수가 아니라고 하였다. Watson과 Protinsky(1988)도 가족의 응결력과 적응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가정의 청소년은 보다 높은 자아정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Richardson 등(1984)은 부모의 적절한 통제와 자율, 허용, 애정 등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상관이 있다고 밝혔다.

가족자부심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관련된 연구로, 김희영(1986)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환경변인으로 가정의 응집력, 친애적 부모-자녀 관계, 물질지향적인 가치관, 지배권자로서의 부모역할 기대 등을 들었다. 최양임(1994)은 가정환경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 간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자아정체감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변인보다 심리적 환경변인과 더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가정분위기 변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박아청(2001)의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일을 행하는 경우 자아정체감의 성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환경과 자아정체성

박은아(1993)의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이나 가족구조보다

학교생활적응 즉 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학업성취도, 학교환경의 지각 등이 여고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보다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학교생활 적응은 자아정체감의 7개 하위영역에서 모두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모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였다. 김형태(1989)의 연구에서는 교사와의 관계와 자아정체감의 모든 하위영역간에 정적으로 높은 상관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역할이 학생들의 교육적 환경의 핵심을 구성하고 교육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학교의 환경이 학생들의 지적·정의적 발달을 촉진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Rutter(1985)도 교사와의 상호작용과 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자아정체감과 밀접한 상관을 맺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학생들간의 자아정체감의 격차는 가정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학교생활의 경험과 관련이 깊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학교생활의 경험에서 중요시되는 것이 학생과 교사간의 인간관계이며, 교사와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해서 부적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자아정체감과 교우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강미애(1991)는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중 독특성, 자기수용, 사회성, 가치 등은 교우관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김형태(1989)는 고교생 집단은 중학생이나 대학생 집단보다 교우관계 변인이 자아정체감 발달과 더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윤명숙(1989)과 홍현덕(1993)의 연구에서도 교우관계가 원만한 집단은 원만하지 않은 집단보다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다고 하였으며, 원만한 교우관계는 자아정체감 발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전병재와 장승옥(1984)도 청소년에게 있어 교우관계는 가정환경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교우집단을 통하여 청소년은 유희성의 충족과 정보를 확인하며 자아정체성의 확립과 사회화를 촉진하게 된다고 보았다. 박아청(2001)의 연구에서는 학교라는 집단에서의 친구 간의 협조적인 관계가 자아정체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와 자아정체감과 관계를 다룬 연구들(김형태, 1989; 윤명숙, 1989; 정성숙, 1994)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사이버환경과 자아정체성

사이버공간이 탈공간적, 초고속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의 활동이 익명성을 보장받으므로 사이버 공간은 위축된 자아를 해방시키고 자아를 확장하는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신체적 외모로 위축된 자아, 열등감으로 위축된 자아가 확장감을 느낄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은 자아 확장의 한 기능을 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의 다중적 자아를 기능할 수 있게 한다. 온라인 상에서 개인은 스

스로 이성이 될 수도 있고 이중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여러 개의 다중 자아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장난으로 실험 삼아 다른 자기가 되다가 실제 자아와 가상자아 간의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개인은 자기 정체성을 위장할 수 있으며 반복된 정체성 위장은 상대는 물론 결국에는 자기 기만으로 스스로 심리적 혼란과 병적 자아의 부적응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 및 치료가 필요하다(이순형, 2002).

이순형(2002)의 사이버공간과 실공간에서의 자아 정체성의 불일치에 관한 연구에서는 실제로 자아정체를 형성한 경우 실공간에서와 사이버 공간에서 언행의 일치도가 높으나, 자아정체성이 혼란스럽거나 정체성을 상실한 경우 실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행이 불일치하는 경향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한상철(2001)은 청소년의 사이버공간 몰입현상과 자아정체성 간의 관계를 밝혔는데, 자아정체성이 확립된 청소년의 경우는 사이버공간에서의 경험이 그들의 또 다른 정체감을 형성시켜주지만, 정체감 혼미나 조기완료 상태의 청소년들에게는 사이버 경험이 그들의 정체감 확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4) 대중문화 환경과 자아정체성

맹용길(1993)은 대중문화는 청소년에게 수동성을 강요하며, 도피처를 마련함은 물론 쾌락성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또한 대중문화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문화적으로 종속당하게 하며, 청소년을 구매자원으로 간주하여 각종 유행수단으로 전락시키며, 심지어 가족의 해체나 아노미 현상까지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이는 대중문화가 청소년에게 판단기준을 상실하고 개개인의 특성을 보유하기 보다는 하나의 대중적 요소로 편입되도록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반면에 조미경(2002)은 대중문화는 청소년에게 있어 친한 친구집단의 경계를 확정하고 유대를 강화시키는 데 사용됨으로써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에 관련된 지식 등은 그것의 의미와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 내부에서만 통용되기 때문에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강화하는데 사용된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생활시간과 생활내용 몰입에 따른 청소년의 유형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2)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자아정체성의 경향

은 어떠한가?

- 3) 청소년 유형별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자아정체성에 차이가 있는가?
- 4) 청소년의 환경요소(가족, 사이버, 학교, 대중문화)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5) 청소년 유형별로 청소년의 환경요소(가족, 사이버, 학교, 대중문화)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전국 5대 도시에 소재한 중, 고등학교 남녀 학생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각 지역별로 4-6개 학교씩을 무작위 추출하고, 각 학교마다 2-4반씩 무작위 선정하여 총 56개 학급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중학교 960명과 고등학교 128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중, 고등학교 각기 남자와 여자를 동일한 비율로 표집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960명, 대구 320명, 부산 320명, 광주 320명, 대전 320명으로서 총 2,24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하여 2,228명의 설문지만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개발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질문지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척도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아존중감

청소년용으로 제작된 Rosenberg(1979)의 척도를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묻는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이다. 신뢰도 계수는 $\alpha=0.85$ 였다.

2) 자아정체성

이차선(1998)의 척도를 참고로 하였는데 여기서는 6개 하위요인 총 5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6개 하위요인 각각에서 5문항씩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6개 하위요인은 안정성, 목표지향성, 자기존재의 독특성, 자기수용, 자기주장, 대인역할 지각 등이다.

3) 신체이미지

선행연구(Brown, Cash, & Mikulka, 1990; Cash, 1990)에

서 신체이미지 측정으로 개발한 MBSRQ(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신뢰도는 $\alpha=0.75$ 로 나타났다.

4) 가족환경

가족환경은 가족구조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물리적 환경과 부모자녀간의 과정환경이라 할 수 있는 심리적 환경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청소년의 주체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심리적 환경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자녀간의 과정환경이라 할 수 있는 부모님과 의사소통, 부모간 갈등, 가족 자부심 등으로 구성하였다.

(1) 부모님과 의사소통: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서의 개방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Baren스와 Olson이 제작한 부모와 자녀간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을 번역한 고효정(1994)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총 20문항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개방성이 높은 것이다. 신뢰도계수는 $\alpha=0.90$ 로 나타났다.

(2) 부모간 갈등: 자녀가 지각한 부모간의 갈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갈등척도는 Black과 Pedro-Carrol(1993)이 개발한 Interparental Conflict Scale(ICS) 척도 중 7문항을 선정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간 갈등이 큰 것이다. 신뢰도계수는 $\alpha=0.85$ 로 나타났다.

(3) 가족 자부심: 가족자부심이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자부심으로서 이는 Olson, Laren, McCubbin(1982)이 개발한 Family Strength Scale 중 가족자부심에 해당하는 7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총 7문항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자부심이 높은 것이다. 신뢰도 계수는 $\alpha=0.89$ 로 나타났다.

5) 사이버 환경

청소년의 주체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 및 경험을 의미하며, 사이버 환경요소로 인터넷 이용실태, 인터넷 이용 이유, 인터넷에서의 경험 등으로 구성하였다.

(1) 인터넷 이용 실태: 홈페이지 유무, 주중 인터넷 이용 빈도, 일일 인터넷이용 시간, 활동하는 인터넷 동호회 종류, 대화방, 채팅의 대화주제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용분야는 인터넷게임, 정보검색 및 자료수집, 대화방 채팅, 이메일/전자우편 등 11가지 서비스에 대한 이용정도를 5점척도로 구성하였다.

(2) 인터넷 이용 이유: 선행연구(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에서 개발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사회변화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내 컴퓨터 실력을 키울 수 있어서' 등 1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인터넷 경험: 선행연구(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에서 개발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나는 실제생활에서보다 인터넷에서 상대방과 더 쉽게 이야기를 나누고 친해질 수 있다' '나는 인터넷에서 내 외모를 실제보다 더 멋있게 말한다' 등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6) 학교환경

청소년의 주체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환경으로 선생님/친구관계와 학교환경의 지지로 구성하였다.

(1) 선생님/친구관계: 이차선(1998)의 연구를 토대로 선생님과의 관계는 총6문항, 친구관계 친밀도는 총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뢰도계수는 선생님과 관계가 0.7965, 친구관계 친밀도는 0.7548로 나타났다.

(2) 학교환경의 지지: 청소년들이 친구, 학교 선생님, 학원(과외)선생님 등으로부터 얻는 지원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심리적 격려와 진로 결정 등의 조언, 관심, 도움말을 주는 정도, 소유물에 대한 공유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6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이다.

7) 대중문화 환경

청소년의 주체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중문화환경으로 연예인관여도, TV관여도, 컴퓨터 관여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1) 연예인관여도: 홍혜은(1999), 김현준(1996), 이미숙(2000) 등의 연구를 참고로 연예인에 대한 태도와 모방 심리, 연예인의 행동 모방 요구 등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2) TV관여도: 이미숙(2000), 홍혜은(1999) 등의 연구를 토대로 TV가 생활에 어느 정도나 필요하다고 여기는지, 어느 정도나 몰입하는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과 시청시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컴퓨터관여도: 이미숙(2000), 홍혜은(1999)의 연구를 토대로 TV관여도와 동일한 내용을 컴퓨터를 대상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8) 생활시간

본 연구진이 청소년의 생활시간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방과 후 시간을 통한 유형 파악이기 때문에, 방과 후에 1시간 단위로 주로 한 일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주중 하루와 주말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주중 하루는 월요일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IV. 결과 분석 및 해석

1. 청소년의 생활시간에 따른 유형화

1) 조사대상자들의 각 활동별 생활시간의 계산

청소년들의 생활시간을 토대로 청소년들을 유형화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조사대상자들의 각 활동별 생활시간을 계산하였다.

(1) 조사대상자들의 생활시간을 평일(월), 토요일, 일요일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월요일은 오후2시-다음날 오전2시까지, 토요일은 오후1시-다음날 오전 2시까지, 일요일은 오전6시-다음날 오전2시까지 각 시간대별로 한 일을 기록하게 하였다. 조사를 하지 않은 시간대는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취침을 하거나 수업을 하고 있는 시간이어서, 응답자에 따라 다른 응답이 나오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2) 예비적으로 일부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각 시간대별로 한 일을 일일이 기록해 본 결과, 청소년들이 하루에 하는 일들은 대체로 <표 1>과 같은 20가지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3) 응답자별로 각 시간대에 한 일을 데이터에 입력하였다.

(4) 각 시간대에 입력된 위의 20가지 활동들을 가변수로 전환하였다. 예를들면 월요일 오후2시는 '월오후2시 수업' '월오후2시 학교' '월오후2시 컴퓨터' ~ '월오후2시 취미생활' 등의 20가지 가변수로 전환하였고, 월요일 오후 3시는 '월오후3시 수업' '월오후3시 학교' '월오후3시 컴퓨터' ~ '월오후3시 취미생활' 등의 20가지 가변수로 전환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해서도 가변수를 만들었다.

(5) 월요일에 대해서 같은 활동을 한 시간들을 모두 합하였다. 예를들어 '월오후2시 컴퓨터' '월오후3시 컴퓨터' '월오후4시 컴퓨터' ~ '다음날 오전 2시 컴퓨터' 를 모두 합하여 월요일에 컴퓨터를 한 시간을 계산하였다. 이같은 방법으로 월, 토, 일요일에 있어서 각 활동 시간을 계산할 수 있었다.

(6) 월요일의 각 활동시간에 5를 곱하여 주중 활동시간을 계산하고, 여기에 토요일과 일요일의 활동시간을 더하여 일주일의 각 활동시간을 계산하였다. 즉, 일주일 동안 위의 20가지 활동을 한 시간을 각각 계산하였다.

2) 생활시간을 토대로 한 청소년 유형 분류

이상과 같은 절차를 거쳐 계산된 청소년들의 생활시간을 토대로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처음에 생활시간 20가지를 모두 넣고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들이 잘 묶이지 않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생활시간들(예: 식사시간)을 적절하게 제거해 가면서 요인분석을 여러 차례 실시해 본 결과, <표 2>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청소년들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숙제/공부, 컴퓨터, 학원, TV시청, 친구, 가족 등의 생활시간을 포함시켜 요인분석을 한 결과 4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분석에 있어서는 요인수를 최소화하면서 정보손실을 최대한 막고 측정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변수들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고, 변수들의 요인분류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이용하였다. 요인 수의 결정은 아이겐 값이 1이상이며 분산의 함을 고려하여 4개로 결정하였다. 7개 요인의 총설명력은 76.4%였다. 요인명은 각 요인에 대한 생활시간 내용들의 요인적재치를 토대로 붙였는데, 요인 1은 숙제공부/비컴퓨터 요인, 요인2는 학원요인, 요인3은 TV시청 요인, 요인4는 친구가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청소년들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생활시간을 토대로 한 4개의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유형간의 특성이 뚜렷하게 부각되는 5개의 군집을 선택하였

<표 2> 생활시간을 토대로 한 요인분석 결과

생활시간 내용	성 분			
	요인1 숙제공부/ 비컴퓨터요인	요인2 학원/비 컴퓨터 요인	요인3 TV시청 요인	요인4 친구/가족 요인
숙제공부	.902	-.163	-.174	-9.8E-02
컴퓨터	-.589	-.520	-.204	-.281
학원	-.114	.914	-.161	-.112
TV시청	-.112	-.123	.907	3.38E-02
친구	-.206	-.154	-.400	.693
가족	-9.9E-02	-3.5E-02	.188	.686
고유값	1.33	1.13	1.10	1.02
설명변량(%)	22.1	18.9	18.3	17.0

<표 1>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내용

1	수업	2	학교	3	컴퓨터(인터넷/게임등)	4	학원(교과학원/운동)
5	저녁식사(학원 등)	6	귀가	7	TV시청	8	숙제/공부
9	취침	10	점심	11	친구들과 놀기	12	아침식사
13	기상(세면/옷갈아입기)	14	가족과 대화시간	15	교회	16	운동
17	휴식	18	라디오 듣기	19	취미생활(독서 등)	20	아르바이트

다. 군집수 결정은 군집들간의 유사성 및 중복성이 극소화되고 있으나 하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5개로 정하였다. 각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요인의 요인점수에 대해 유형별 일원분산분석을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 모든 요인에서 유형에 따라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유형1은 요인들중 'TV시청 요인'의 요인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TV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2는 모든 요인점수가 음으로 나타났으나 특히 '숙제공부/비컴퓨터 요인'과 '학원/비컴퓨터 요인'의 요인 점수가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컴퓨터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3은 '친구가족 요인'의 요인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친구가족(관계몰입)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4는 '숙제공부/비컴퓨터 요인'의 요인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숙제공부형'으로 명명하였고, 유형5는 '학원/비컴퓨터 요인'의 요인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학원형'으로 명명하였다.

2.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자아정체성의 경향

조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31.48(범위: 10-50, 표준편차 7.21), 5점척도상 3.15로 중간 정도의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정체성 점수 평균은 94.68(범위: 55-142, 표준편차 12.42), 5점척도상 3.16으로

역시 중간정도의 자아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의 신체이미지 점수 평균은 50.50(범위: 18-83, 표준편차 10.74)로 나타났는데, 이는 5점척도상 2.81로 보통보다 약간 낮게 신체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유형에 따라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자아정체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본 결과, 신체이미지에 있어서는 TV형, 친구/가족형, 숙제공부형이 컴퓨터형 및 학원형보다 외모에 관심이 많으며 외모관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에 있어서는, 숙제공부형이 가장 높은 32.18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학원형 32.92, 관계몰입형이 32.02, 컴퓨터형이 30.84이며 TV형이 가장 낮은 30.74이었다. 그리고 자아정체성에 있어서는, 숙제공부형이 가장 높은 96.67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학원형 96.28, 관계몰입형이 95.66, TV형이 93.71이며 컴퓨터형이 가장 낮은 93.16이었다. 추후분석 결과, 신체이미지는 컴퓨터형이 TV형, 친구/가족형, 숙제공부형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의 경우 TV형은 관계몰입형, 학원형, 숙제공부형보다 그리고 컴퓨터형은 학원형이나 숙제공부형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자아정체성은 컴퓨터형은 관계몰입형, 학원형, 숙제공부형보다, 그리고 TV형은 숙제공부형, 학원형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3> 생활시간에 따른 청소년유형 분류

생활시간 요인점수	유형1 TV형 (N=403)	유형2 컴퓨터형 (N=523)	유형3 친구, 가족관계 몰입형(N=134)	유형4 숙제공부형 (N=250)	유형5 학원형 (N=497)	F값
요인1 (숙제공부/비컴퓨터 요인)	-0.09	-0.68	-0.31	1.75	-0.01	594,621***
요인2 (학원/비컴퓨터 요인)	-0.26	-0.58	-0.21	-0.58	1.18	540,752***
요인3 (TV시청요인)	1.29	-0.39	-0.68	-0.49	-0.21	454,564***
요인4 (친구/가족요인)	-0.08	-0.31	2.49	-0.30	-0.16	654,114***

*** $p<.001$

<표 4> 청소년 유형별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자아정체성 차이

청소년 유형	N	신체 이미지		자아존중감		자아정체성	
		평균(S.D.)/Duncan	F값	평균(S.D.)/Duncan	F값	평균(S.D.)/Duncan	F값
T V 형	397	.096 a	6.016***	30.74(6.88) a	5.74***	93.71(12.33) ab	5.88***
컴퓨터형	515	-.107 b		30.84(7.32) ab		93.16(12.25) a	
관계몰입형	133	.238 a		32.02(7.51) bc		95.66(12.11) bc	
숙제공부형	244	.078 a		32.18(7.58) c		96.67(13.73) c	
학원형	490	-.11 ab		32.92(7.25) c		96.28(12.57) c	

*** $P<.001$, ** $P<.01$, * $P<.05$

3. 각 환경요인이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1) 각 환경요인이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1) 가족환경 요인의 영향: 가족간에 의사소통을 잘 하지 않는 청소년들, 부모간 갈등이 있는 청소년들이 외모에 관심이 높고, 외모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이버환경 요인의 영향: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는 인터넷 동호회, 대화방/채팅, 이메일 등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적극적 행동과 게임/비학습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하는 청소년들이 외모관리를 많이 하고, 게임을 즐기거나 인터넷에서 적극적 행동(인터넷에 의견올리기, 쇼핑 및 구매 등)을 자주 하는 청소년들은 외모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터넷 이용 이유에 있어서는 대인관계, 여가활동, 정보나 자료 탐색을 위해 인터넷을 하는 청소년들이 외모관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인터넷 경험에 있어서는, 인터넷에서 문제행동을 경험했거나 상대방을 불신하는 청소년들이 외모관리를 많이 하는데, 타인과의 친숙한 관계를 경험한 청소년들 또한 외모관

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교환경 요인의 영향: 선생님/친구관계에서는 우호적 친구관계와 함께 경쟁적 친구관계가 형성되어 있을수록, 선생님에게 불만이 있을수록 외모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환경의 지지 요인에서는 친구의 지지를 받는 청소년들이 외모관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선생님의 지지를 받는 학생들은 외모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중문화환경 요인의 영향: 연예인 관여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예인 관여가 높은 청소년들은 외모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 관여가 높은 청소년 역시 외모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각 환경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1) 가족환경 요인의 영향: 가족에 대한 자부심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가족에 대한 자부심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표 5〉 각 환경요인이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β)	t	R ²		
		B	표준오차					
가족환경요인	가족에 대한 자부심	7.464E-03	.005	.042	1.378	.016		
	부모간 갈등	1.283E-02	.005	.071	2.659**			
	부모와의 의사소통	-8.1E-03	.002	-.105	-3.720***			
사이버환경요인	인터넷 이용	적극적 행동	-4.5E-02	.021	-.045	-2.141*	.062	
		커뮤니케이션	.237	.021	.238	11.304***		
		검색 및 여가	2.167E-02	.021	.022	1.025		
		게임/비학습	-5.4E-02	.021	-.053	-2.535*		
	인터넷 이용 이유	대인관계	9.107E-02	.022	.091	4.208***		.023
		심리적 안정	-1.7E-02	.022	-.017	-.770		
여가활동		.107	.022	.107	4.908***			
인터넷 경험	정보자료탐색	5.713E-02	.022	.057	2.625**	.070		
	중독	2.428E-02	.021	.024	1.136			
	신뢰	5.699E-04	.021	.001	.027			
	문제행동	6.716E-02	.022	.067	3.112**			
학교환경요인	선생님/친구관계	진술함	.169	.021	.170	7.918***	.105	
		상대방 불신	.191	.021	.191	8.914***		
		선생님 불만	.169	.021	.169	8.188***		
	우호적 친구관계	.210	.021	.209	10.108***			
	경쟁적 친구관계	.180	.021	.108	8.697***			
학교환경의 지지	친구지지	3.515E-02	.007	.120	4.921***	.020		
	선생지지	-2.6E-02	.006	-.108	-4.086***			
	학원지지	-2.2E-03	.005	-.011	-.428			
대중문화 환경요인	연예인 관여	2.684E-02	.002	.263	11.493***	.078		
	TV 관여	-3.8E-04	.004	-.002	-.101			
	컴퓨터 관여	1.018E-02	.004	.062	2.877**			

***P<.001, **P<.01, *P<.05

나타났다. 가족환경 세요인의 설명력은 19%였다.

(2) 사이버환경 요인의 영향: 인터넷 이용시간이 짧을수록, 인터넷에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인터넷 이용도가 높을수록, 인터넷에서의 경험(심리적 보상, 지적/사회적 활동, 사이버 폭력/성)이 적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 환경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양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용시간이나 인터넷에서의 경험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 지지나 분명한 목적을 가진 인터넷 이용은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3) 학교환경 요인의 영향: 선생님과의 관계와 친구와의 관계 모두 다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친구와의 관계보다는 선생님과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학교환경요인들의 설명력은 12%였다.

(4) 대중문화환경 요인의 영향: 대중문화환경 요인인 연예인관여, TV관여, 컴퓨터관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세 독립변수로 구성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3) 각 환경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1) 가족환경 요인의 영향: 가족에 대한 자부심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환경 요인 세변수의 설명력은 21%이었다.

(2) 사이버환경 요인의 영향: 인터넷 이용시간이 짧을수록, 인터넷에서 심리적 보상을 적게 경험할수록, 인터넷에서 익명성, 무예절을 적게 경험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으로부터 받는 지지가 높다고 보고할수록, 그리고 인터넷을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이버 환경 요인들의 설명력은 10%였다.

(3) 학교환경 요인의 영향: 학교환경 요인의 설명력은 20%였으며, 선생님과의 관계와 친구와의 관계가 긍정적인수록 자아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중문화환경 요인의 영향: 대중문화환경 요인의 설명력은 1% 였는데, TV관여도가 낮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청소년 유형별로 각 환경요인이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1) 청소년 유형별로 각 환경요인이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1) 청소년 유형별 가족환경 요인의 영향

TV형, 친구/가족관계 몰입형, 숙제공부형 청소년집단의 경우, 가족환경 요인은 신체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형 청소년의 경우는 가족과의 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외모관리에 신경을 덜 쓰고 있었고, 학원형 청소년의 경우는 부모간 갈등이 클수록 외모관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 유형별 사이버환경 요인의 영향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는 모든 청소년 유형의 경우에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하는 청소년들은 외모관리를 많이 하고 외모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컴퓨터형의 경우는 게임/비학습으로 인터넷을 이용할수록 외모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원형의 경우는 검색 및 여가의 목적으

〈표 6〉 각 환경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t	R ²
가족환경요인	부모간 갈등	0.017	.03	.55	.19
	가족에 대한 자부심	.37	.04	10.39***	
	부모와의 의사소통	.11	0.1	7.61***	
사이버환경요인	인터넷이용시간	-.00	-.06	-2.57*	.08
	인터넷으로부터의 지지	.18	.12	4.66***	
	인터넷 이용도	.10	.08	3.18**	
	인터넷에서의 경험(심리적 보상)	-1.86	-.26	-11.14***	
	인터넷에서의 경험(지적/사회적 활동)	-.58	-.08	-3.16**	
	인터넷에서의 경험(사이버 폭력/성)	-.36	-.05	-2.14*	
학교환경요인	선생님과의 관계	.43	.28	11.42***	.12
	친구와의 관계	.34	.16	13.81***	

***P<.001, **P<.01, *P<.05

〈표 7〉 각 환경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t	R ²
가족환경요인	부모간 갈등	.07	.03	1.36	.21
	가족에 대한 자부심	.67	.06	10.84***	
	부모와의 의사소통	.22	.23	8.79***	
사이버환경요인	인터넷이용시간	-.01	-.05	-2.36*	.10
	인터넷으로부터의 지지	.18	.07	2.69**	
	인터넷 이용도	.28	.13	5.09***	
	인터넷에서의 경험(심리적 보상)	-.37	-.07	-2.41*	
	인터넷에서의 경험(지적/사회적 활동)	.44	.06	2.17	
	인터넷에서의 경험(사이버 폭력/성)	-.10	-.02	-.82	
	인터넷에서의 경험(새로운 교류/개방)	-.13	-.04	-1.25	
인터넷에서의 경험(익명성/무예절)	-1.34	-.22	-8.36***		
학교환경요인	선생님과의 관계	.97	.29	14.83***	.20
	친구와의 관계	1.12	.32	16.28***	
대중문화환경요인	연예인관여	.01	.00	.15	.01
	TV관여	-.14	-.06	-2.81**	
	컴퓨터관여	-.05	-.02	-1.07	

***P<.001, **P<.01, *P<.05

로 인터넷을 자주 이용할수록 외모관리를 하고 있었다. 또한 친구/가족 몰입형의 경우는 인터넷에서 적극적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일수록 외모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 이유에 있어서는 TV형과 학원형의 경우에는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외모관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형, 친구/가족몰입형, 학원형의 경우에는 여가활동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일수록, 학원형의 경우에는 정보자료 탐색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일수록 외모관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경험에 있어서는 모든 유형의 경우에 상대방과의 친숙한 관계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일수록, 친구/가족형을 제외한 네 유형의 경우에 상대방을 불신하는 청소년들일수록 외모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타인과의 관계가 외모관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TV형과 학원형의 경우에는 문제행동을 경험할수록, 컴퓨터형의 경우에는 인터넷에 중독되었다고 느낄수록 외모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 유형별 학교환경 요인의 영향

선생님/친구관계에 있어서는, 친구가족형의 경우 경쟁적 친구 관계만이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는 모든 유형에 있어서 선생님에게 불만이 있을수록, 우호적인 친구관계 또는 경쟁적 친구관계가 형성될수록 외모관리를 많이 하고 외모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원형의 경우는 경쟁적 친구관계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컴퓨터형, 친구/가족형, 숙제공부형의 경우는 우호적 친구관계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환경의 지지에 있어서는 컴퓨터형, 친구/가족형, 숙제공부형의 경우 친구의 지지를 받는 청소년들이 외모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컴퓨터형의 경우 선생님의 지지를 받지 못할수록, 학원형의 경우 학원 선생님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외모관리를 많이 하고 외모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청소년 유형별 대중문화환경 요인의 영향

친구/가족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 있어서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높고 연예인을 모방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외모관리를 많이 하고, 외모관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가족형의 경우는 컴퓨터 관여도가 클수록 외모관리를 하고, 외모관리에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 유형별로 각 환경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1) 청소년 유형별 가족환경 요인의 영향

숙제공부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 있어서 가족에 대한 자부심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가족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 있어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숙제공부형의 경우에만 부모간 갈등이 클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높았는데 이처럼 부모간의 갈등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유형에서는 찾기 어려운 결과이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좀 더 확실한 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친구/가족형의 경우 다른 유형과 달리, 가족에 대한 자부심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환경 요인의 설명력이

〈표 8〉 청소년 유형별로 각 환경요인이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청소년 유형					
		TV형 B(β)	컴퓨터형 B(β)	친구/가족몰입형 B(β)	숙제공부형 B(β)	학원형 B(β)	
가족 환경 요인	가족에 대한 자부심	1.357E-02(.079)	4.434E-03(.024)	-1.9E-02(-.099)	-4.8E-03(-.028)	1.013E-02(.055)	
	부모간 갈등	1.914E-02(.108)	8.065E-03(.047)	4.466E-02(.221)	1.242E-02(.067)	2.047E-02(.107)*	
	부모와의 의사소통	-6.2E-03(-.084)	-1.6E-02(-.207)***	1.030E-02(.125)	9.130E-03(.128)	-8.5E-03(-.101)	
	R ²	.015	.047	.066	.012	.022	
사이버 환경 요인	인터넷이용	적극적행동	-2.2E-02(-.022)	-3.0E-02(-.029)	-.270(-.234)**	-2.9E-03(-.003)	-2.1E-03(-.002)
		커뮤니케이션	.230(.231)***	.291(.291)***	.339(.360)***	.179(.177)**	.270(.269)***
		검색 및 여가 게임/비학습	5.084E-02(.053)	-4.3E-02(-.040)	9.884E-02(.092)	-7.5E-02(-.071)	9.132E-02(.094)*
		R ²	.061	.104	.224	.046	.085
	인터넷 이용이유	대인관계	.216(.227)***	4.588E-02(.043)	.148(.144)	6.495E-02(.091)	.119(.122)**
		심리적인정 여가활동	-5.5E-02(-.050)	-4.5E-02(-.046)	-4.8E-02(-.041)	9.172E-02(.091)	3.435E-02(.035)
	정보자료탐색	8.857E-02(.051)	.174(.165)**	.209(.203)*	4.663E-02(.046)	.121(.126)**	
	R ²	.060	.032	.063	.015	.041	
인터넷경험	중독	9.522E-02(.094)	.119(.122)**	3.013E-02(.023)	-1.9E-02(-.019)	8.229E-02(.081)	
	신뢰	2.688E-02(.026)	5.164E-02(.052)	-7.8E-02(-.071)	-8.4E-02(-.076)	4.884E-02(.051)	
	문제행동	.155(.152)**	-1.5E-02(.045)	-5.7E-02(-.052)	2.419E-02(.023)	.125(.127)**	
	진솔함	.263(.255)***	.184(.178)***	.228(.212)*	.217(.211)**	.139(.145)**	
	상대방불신	.175(.176)***	.213(.221)***	.122(.106)	.206(.195)**	.163(.160)**	
	R ²	.123	.102	.057	.087	.067	
학교 환경 요인	선생님/친구 관계	선생님불만	.165(.157)**	.177(.164)***	.207(.201)*	.143(.144)*	.114(.114)**
		우호적친구관계	.182(.178)***	.245(.237)***	.419(.349)***	.287(.289)***	.160(.157)***
		경쟁적친구관계	.183(.177)***	.176(.176)***	-2.0E-04(.000)	.199(.196)**	.258(.275)***
		R ²	.089	.116	.161	.116	.118
	학교환경의 지지	친구지지	1.447E-02(.051)	3.058E-02(.100)*	6.410E-02(.209)*	5.572E-01(.202)**	2.585E-02(.087)
	선생지지	-1.2E-02(-.053)	-4.9E-02(-.193)***	2.212E-03(.010)	-1.0E-02(-.044)	-2.2E-02(-.092)	
	학원지지	-3.8E-03(-.020)	5.34E-03(.027)	-1.8E-02(-.090)	-1.4E-02(-.072)	2.762E-02(.116)*	
	R ²	.005	.038	.044	.039	.019	
대중 문화 환경 요인	연예인관여	2.054E-02(.198)***	3.298E-02(.323)***	9.110E-03(.082)	2.635E-02(.267)***	3.315E-02(.342)***	
	TV관여	-4.0E-03(-.022)	-6.8E-03(-.041)	1.075E-02(.064)	-4.7E-03(-.030)	-5.9E-03(-.038)	
	컴퓨터관여	1.276E-02(.080)	9.289E-03(.050)	4.902E-02(.278)***	9.076E-03(.057)	9.489E-03(.059)	
	R ²	.048	.099	.113	.073	.121	

***P<.001, **P<.01, *P<.05

31%로 다른 유형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 가족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다른 유형보다 큰 편임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 유형별 사이버환경 요인의 영향

친구/가족형과 숙제공부형의 경우 인터넷이용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넷에서의 경험은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TV형, 숙제공부형, 학원형의 경우 인터넷 경험에 있어서 인터넷 이용에 따른 심리적인 보상 경험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가족형, 숙제공부형의 경우 인터넷에서의 지적/사회적 활동경험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원형의 경우 인터넷에서 사이버 폭력/성

경험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환경 요인들의 설명력을 보면 TV형의 경우 4%로 가장 낮게 나타나는 반면 컴퓨터형이 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학원형도 5%로 매우 낮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3) 청소년 유형별 학교환경 요인의 영향

학교환경 요인에 있어서는, 친구가족형의 경우 친구와의 관계만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외는 모든 유형에 있어서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친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유형에 있어서 선생님과의 관계의 영향력이 친구와 관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친구/가족형의 경우, 친구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 유형의 친구

〈표 9〉 청소년 유형별로 각 환경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청소년 유형				
		TV형 B(β)	컴퓨터형 B(β)	친구/가족몰입형 B(β)	숙제공부형 B(β)	학원형 B(β)
가족 환경 요인	부모간 갈등	0.00(.00)	-.02(-.02)	-.07(-.05)	.21(.15)*	.10(.07)
	가족에 대한 자부심	.32(.26)***	.32(.24)***	.64(.49)***	.59(.46)	.36(.27)***
	부모와의 의사소통	.10(.19)***	.10(.19)**	-.03(.07)	-.06(.12)***	.20(.33)***
	R ²	.16	.15	.31	.22	.25
사이버 환경 요인	인터넷이용시간	-.00(-.06)	-.02(.08)	-.00(-.15)	-.00(-.10)	.00(.02)
	인터넷으로부터의 지지	-.05(.03)	.18(-.05)	.43(.12)	.30(.06)	.16(.10)
	인터넷이용도	-.09(.08)	.09(.11)	.13(.29)**	.08(.19)*	.12(.10)
	심리적 보상경험	-1.39(-.19)**	-2.33(-.32)	-.90(-.10)	-1.66(-.23)**	-1.46(-.19)***
	지적/사회적활동 경험	-.71(-.10)	-.57(-.08)	-1.65(-.22)*	-1.44(-.17)*	-.25(-.03)
	사이버폭력/성경험	-.71(-.10)	-.44(-.06)	.14(-.02)	.81(.11)	-1.12(-.15)**
	새로운 교류/개방 경험	.43(-.06)	-.54(-.07)	-.02(-.00)	-.05(-.01)	-.04(-.01)
	익명성/무예절 경험	.17(.02)	-.56(-.08)	-.68(-.09)	.31(.04)	.09(.01)
R ²	.04	.11	.09	.09	.05	
학교 환경 요인	선생님과의 관계	.43(.26)***	.35(.22)***	.49(.32)***	.46(.31)***	.50(.33)***
	친구와의 관계	.30(.14)**	.24(.11)*	.16(.07)	.52(.23)***	.42(.18)***
	R ²	.095	.065	.10	.19	.15

***P<.001, **P<.01, *P<.05

관계가 가장 우호적이기 때문에 변별력을 갖는 변수로 작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5개 유형의 친구관계를 일원분산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친구/가족형의 친구와의 관계가 27.22로 다른 유형들의 평균 26점대에 비해 비교적 우호적인 정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환경 요인의 설명력을 보면 숙제공부형이 1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원형 15%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런 유형의 청소년들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학생들로 다른 유형에 비해 학교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력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컴퓨터형은 6.5%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4) 청소년 유형별 대중문화환경 요인의 영향

모든 유형에 있어서 대중문화 환경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 유형별로 각 환경요인이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1) 청소년 유형별 가족환경 요인의 영향

모든 유형에 있어서, 부모간 갈등은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가족자부심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친구가족형을 제외한 다른 네 유형에 있어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제공부형, 친구/가족형, TV형의 경우는 가족자부심의 영향력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학원형

의 경우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영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족환경 요인들의 설명력을 보면 친구가족형이 38%로 가장 높은 반면, TV형과 컴퓨터형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2) 청소년 유형별 사이버환경 요인의 영향

TV형의 경우 인터넷 이용시간이 짧을수록, 숙제공부형의 경우 인터넷으로부터의 지지가 클수록, 친구/가족형의 경우 인터넷 이용도가 높을수록 자아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터넷에서의 경험은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숙제공부형의 경우 인터넷에서의 심리적 보상경험을 많이 할수록 자아정체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구/가족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 있어서 인터넷에서 익명성/무예절성 경험이 많을수록 자아정체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환경요인들의 설명력을 보면 숙제공부형이 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주로 부적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음으로 친구/가족형이 19%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적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원형과 TV형은 매우 낮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3) 청소년 유형별 학교환경 요인의 영향

모든 유형에 있어서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컴퓨터형과 친구/가족형의 경우에는 친구와의 관계의 영향력이 그리고 숙제공부형과 학원형은 선생님과의 관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환경 요인의 설명력을 보면 숙제공부

〈표 10〉 청소년 유형별로 각 환경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청소년 유형				
		TV형 B(β)	컴퓨터형 B(β)	친구/가족몰입형 B(β)	숙제공부형 B(β)	학원형 B(β)
가족 환경 요인	부모간 갈등	-.05(-.02)	.05(.23)	.06(.03)	.34(.13)	.18(.07)
	가족에 대한 자부심	.62(.27)***	.53(.25)***	1.07(.51)***	.98(.41)***	.67(.28)***
	부모와의 의사소통	.18(.18)**	.20(.22)***	.15(.16)	.18(.19)*	.36(.34)***
	R ²	.18	.17	.38	.24	.28
사이버 환경 요인	인터넷이용시간	-.02(-.12)*	-.001(-.01)	-.02(-.14)	-.004(-.02)	-.01(-.05)
	인터넷으로부터의 지지	.21(.07)	.24(.09)	.21(.08)	.44(.16)*	.16(.05)
	인터넷 이용도	.23(.11)	.17(.09)	.53(.26)*	.31(.14)	.36(.16)**
	심리적 보상경험	-.28(-.05)	-.15(-.03)	-.15(-.03)	-1.60(-.30)**	-.27(-.05)
	지적/사회적활동 경험	.35(.05)	.28(.04)	1.13(.16)	-.72(-.09)	.61(.08)
	사이버폭력/성 경험	-.12(-.02)	.12(.03)	-.02(-.01)	.29(.06)	-.52(-.09)
	새로운 교류/개방 경험	.15(.05)	-.30(-.10)	.11(.04)	.27(.08)	-.13(-.04)
익명성/무예절 경험	-1.03(-.16)*	-1.71(-.31)***	-1.171(-.27)	-1.96(-.33)***	-.18(-.13)*	
	R ²	.06	.12	.19	.25	.07
학교 환경 요인	선생님과의 관계	.98(.27)***	.80(.24)***	.75(.23)**	1.50(.42)***	1.06(.32)***
	친구와의 관계	1.04(.28)***	1.12(.32)***	1.36(.41)***	1.13(.29)***	1.03(.29)***
	R ²	.16	.14	.25	.30	.21
대중 문화 환경 요인	연예인관여	.14(.11)*	-.05(-.04)	-.20(-.15)	-.15(-.11)	.03(.03)
	TV관여	-.09(-.04)	-.03(-.02)	-.04(-.02)	.05(.02)	-.36(-.17)**
	컴퓨터관여	-.01(-.003)	-.26(-.11)*	.21(.10)	-.02(-.01)	.20(.10)*
	R ²	.01	.02	.03	.01	.03

***P<.001, **P<.01, *P<.05

형이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친구/가족형이 25%로 나타났다. 반면, TV형과 컴퓨터형은 각각 16%, 1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4) 청소년 유형별 대중문화환경 요인의 영향

TV형의 경우 연예인관여도가 높을수록 자아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컴퓨터형의 경우는 컴퓨터 관여도가 낮을수록 자아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형의 경우는 TV관여도가 낮을수록, 컴퓨터관여도가 높을수록 자아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관여도가 컴퓨터형의 경우 부적으로, 학원형의 경우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친구/가족형과 숙제공부형의 경우는 대중문화 환경 요인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대한 대중문화환경 요인들의 영향력은 모든 유형에 있어 낮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V. 결론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청소년들의 생활시간을 토대로 한 청소년 유형 중 컴퓨

터형은 컴퓨터에, TV형은 TV시청에, 친구관계 몰입형은 친구와 노는데, 학원형은 학원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시간사용에 대해 검토하게 한 후, 균형적인 시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간관리 교육을 시켜야 한다.

2) 청소년 유형별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자아정체성 차이를 보면 컴퓨터형의 경우 이 세가지 모두의 점수가 낮고, TV형도 신체이미지 관리의 많이 하지만 자아정체성이나 자아존중감은 낮은데 이런 유형 청소년의 주체성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이 유형들이 컴퓨터나 TV와 접하는 시간이 많으므로, 이런 매체를 고려한 자아존중감 및 자아정체성 증진 프로그램 구성이 유익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중간정도의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 점수를 보여주나 신체이미지 관리의 많이 하는 친구/가족관계 몰입형의 경우도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상담과 교육, 관심 등이 필요하다 하겠다.

3) 가족환경 요인 중 가족자부심이 높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모간 갈등이 많다고 느끼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적게 할수록 외모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체이미지 관리의 자아정체성이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하나

의 수단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가족환경이 청소년의 주체형성에 매우 중요하므로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부모간 갈등이 적으며 가족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가족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4) 사이버환경 요인에서는 인터넷 이용시간이 짧을수록, 인터넷 이용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경험 중 익명성이나 무예절성이 적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받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인터넷을 통한 심리적 보상을 적게 받을수록 자아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인터넷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청소년의 주체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어떤 목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란 가상공간에서 심리적 보상을 추구하는 것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 오므로, 가족이나 학교 등 현실공간에서 심리적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5) 인터넷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자주하거나 인터넷 이용이 유가 대인관계, 여가활동, 정보나 자료탐색인 경우, 인터넷에서 문제행동을 경험했거나 상대방을 불신하는 경우 신체이미지 관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의견올리기, 쇼핑 등 적극적 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신체이미지 관리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이미지 관리를 많이 하는 청소년들은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도 사람들간의 관계나 여가와 같은 오락, 또는 관련 정보 탐색에 치중하는 반면, 게임이나 인터넷에서의 적극적 행동은 적게 하고 있다. 이로써 인터넷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가 청소년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이 어떤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에 적절한 지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6) 학교환경 요인 중 선생님과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선생님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신체이미지 관리를 덜 하는 반면 선생님에게 불만이 있을수록, 친구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우호적 및 경쟁적 친구관계가 있을수록 신체이미지 관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와 친구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아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주체형성에 있어 선생님과의 관계나 친구관계 모두 중요하나, 특히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학생들은 친구의 지지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위해 신체이미지 관리에 관심을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 이를 칭찬하고 장

려하는 식으로 선생님과 학생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선생님과 관계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와의 관계도 원활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자아정체성과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은 물론이고 신체이미지 관리에도 관심이 없을 수 있다. 즉, 자신의 주체를 형성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는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다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국적으로 각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이 모든 것에 대해 아무런 의욕을 보이지 않는 청소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7) 대중문화환경 요인 중 TV관여도가 낮을수록 자아정체성이 높고 연예인 관여도와 컴퓨터 관여도가 높을수록 신체이미지 관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관심을 어디로 유도할 것인지 연구가 필요하며, 만일 TV나 연예인, 컴퓨터를 대체할 만큼 청소년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대상이나 매체가 없다면 이것이 교육적인 효과를 가지도록 어떠한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8) TV형 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족자부심, 부모와의 의사소통,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경험은 자아정체성과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인터넷에서 심리적 보상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터넷에서 익명성이나 무예절성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인터넷 이용시간이 길수록 자아정체성이 낮으므로 이용시간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TV형은 또한 연예인 관여도가 높을수록 신체이미지 관리도 많이 하고 자아정체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TV형 청소년들이 연예인 모방과 동일시를 통해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9) 컴퓨터형 청소년의 경우 역시,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족자부심, 부모와의 의사소통,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컴퓨터 관여를 적게할수록, 인터넷에서 익명성/무예절성을 적게 경험할수록 자아정체성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컴퓨터에 덜 몰입하도록 유도하고 인터넷에서 부정적 경험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컴퓨터형 청소년의 경우 선생님에 대한 불만이 많을수록, 선생님의 지지를 받지 못할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잘 안될수록 신체이미지 관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친구의 지지와 친구관계는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친구의 관심과 지지를 받기 위해 신체 이미지 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할 수 있

다. 한편 컴퓨터형 청소년의 경우, 게임/비학습에 몰두하는 경우 신체 이미지 관리를 적게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여가활동, 중독·진술함·상대방 불신 등의 인터넷 경험은 신체 이미지 관리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사용 목적과 인터넷에서의 경험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10) 친구/가족형의 경우는, 가족환경 중 가족자부심만이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환경 요인들의 설명력은 모든 유형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학교환경 요인 중에서 친구와의 관계는 자아정체성에, 선생님과의 관계는 자아존중감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선생님과의 관계와 친구와의 관계에서 청소년이 형성하게 되는 주체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인터넷 이용도는 자아정체성과 자아존중감에 모두 영향을 미치므로, 친구가족형의 경우 인터넷 이용을 다양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선생님에 대한 불만이 크고 친구의 지지나 친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신체이미지 관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선생님의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다.

11) 숙제공부형 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정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족자부심,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간 갈등,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심리적 보상경험, 익명성/무예절성 경험, 지적/사회적 활동 경험 등은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이 인터넷에서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숙제공부형은 흔히 말하는 공부 잘하는 모범생들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친구들의 지지, 친구들과의 관계가 많을수록 그리고 선생님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연예인 관여도가 높을 경우 신체 이미지 관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학원형 청소년의 경우 역시,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정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족자부심, 부모와의 의사소통,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와의 갈등이 클수록 신체이미지 관리를 많이 하므로, 청소년들이 부모간 갈등에서 얻는 마음의 상처가 크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터넷에서의 경험은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신체이미지 관리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인터넷에서 부정적 경험을 하지 않도록 인터넷 사용에 대한 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불만이 클수록, 학원 선생님과 친구의 지지가 클수록, 연예인 관여도가 클수록 신체 이미지 관리를 많이 하므로, 청소년들이 그 시기에 맞는 주체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과업들 간에 적절한 균형을 취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미애(1991). 농촌지역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석기(2003). 청소년의 태도가 자아존중감 및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10(3), 155-180.
- 강혜원(1996). 의상사회심리. 교문사.
- 고선주(2000). 정보사회와 가족: 정보사회에서 가족의 삶의 변화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2), 167-183.
- 고효정(1994). 어머니 역할의 개념분석. 모자간호학회지, 4(1), 80-90.
- 국어사전(2005). 민중서관.
- 권병덕(2000). 대중매체가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순명(1993). 지각된 양육경험과 자아정체감 및 통제귀인간의 관계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혜진, 윤종희(1993). 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14(1), 167-177.
- 김동철(1996).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선호경향과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렬(1990). 대중문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옥순, 최익선, 박혜진(1994). 컴퓨터와 청소년 문화-컴퓨터 음란영상물 접촉실태 및 영향.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연구보고서, 5-8.
- 김유자(1996). 아동이 지각한 가정환경에 따른 정체감 유형과 창의성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하연, 오경자, 윤진(1991). 청소년의 자아개념, 또래집단에 동조 및 비행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4(2), 199-212.
- 김현경(2002). 청소년의 대중문화수용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준(1996). 청소년 집단의 TV 프로그램 수용행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태(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경(2000). TV 방송음악이 청소년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민족음악학회. 음악과 민족, 19, 244-266.
- 김혜원(2001).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현상: 인터넷 중독의 현황파악과 관련변인분석. 청소년학연구, 8(2), 91-

- 117.
- 김희영(1986).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과 가정의 심리적 환경변인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화, 김경연(1998).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2), 47-60.
- 남승희 편역(1993). *청소년은 누구인가*. 서울: 서원.
- 맹용길(1993). 한국의 대중문화와 청소년문화. *교육교회*, 202, 24-35.
- 박경리, 김경연(2001). 아동의 영역별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 및 또래수용도의 영향: 단짝친구 지지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22(4), 85-97.
- 박아청(1990). Erikson 성격발달이론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보완. *계명행동과학*, 3(1), 55-75.
- 박아청(2001). 대학생의 가정과 학교생활의 적응과 개체화와 자아정체감 사이의 인과관계. *아동교육*, 10(1), 161-173.
- 박아청, 이승국(199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 분석. *교육심리연구*, 13(4), 113-142.
- 박유진, 김재휘(2005). 인터넷 커뮤니티의 사회적 지지가 커뮤니티 몰입과 동일시 및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3-25.
- 박은아(1993). 가족구조,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따른 여고생의 자아정체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재현(1993). 청소년의 분기개체화 과정과 자아정체감 발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설희(1993). 가족유형과 지각된 부모의 수용-거부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옥선화(1998). 90년대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생활의 방향.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유명환(1989). 가정환경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명숙(1989).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소연(1993). 자신이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영민(2001). 사이버공간의 청소년 행동: 정책개발을 위한 이론적 탐색. *청소년학연구*, 8(2), 199-228.
- 윤진(1993). *청소년심리학*. 한국청소년 개발원.
- 이국길, 이미숙(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계.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집*, 1(1), 89-107.
- 이미숙(2000). TV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및 연예인 모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소영(2000). 게임의 중독적 사용이 청소년의 문제해결 능력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형(2002). 사이버공간과 실공간에서의 자아 정체성의 불일치. *대한가정학회지*, 40(4), 59-71.
- 이차선(1998).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형성요인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해경, 김혜원(2000). 폭력노출이 집단괴롭힘 가해와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변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95-113.
- 전병재, 장승옥(1984). 한국 청소년 연애 집단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연구*, 여름호.
- 정성숙(1994). 아동기의 학습부진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인(1998). 부모의 실업이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경(2002). 대중문화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명, 고애란(200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 이미지가 의복추구 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류학회지*, 25(7), 1227-1238.
- 조영승(2000). 새천년의 청소년 정책방향과 청소년의 과제. *한국청소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조원영(1990). 가정환경이 학업성취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경, 도현심(2000).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기 종단적 연구: 애착 및 우정관계의 역할. *아동학회지*, 21(3), 85-105.
- 최보가, 전귀연(199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2), 41-54.
- 최양임(1994). 가정환경, 청소년 자아정체감 형성간의 상관성 연구.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 5(1), 160-208.
- 최우신(1999). 청소년의 연예인 이상화와 심리 및 가족환경 특성.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진, 구창모, 정문성(1991). 청소년 문제행동 진단을 위한 조사연구. *한국청소년연구*, 5.
- 한상철(2001). 청소년의 사이버공간 몰입현상과 자아정체성

- 과의 관계, 경산대학교 논문집, 18(1), 21-35.
- 홍성애(1988). 가정환경과 가족체제 상호작용 유형이 청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현덕(1993). 계열별 여고생의 자아정체감과 교우관계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혜은(1999). 청소년의 TV 미디어 스타에 대한 의복 동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희자(1997). 청소년잡지의 내용과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umeister, R. H. & Tice, D. M. (1985). Self-esteem and responses to success and failure: Subsequent performance and intrins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53, 450-467.
- Bosma, H. A., & Gerrits, R. S. (1985). Family functioning and identity status in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5(1), 69-80.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lack, A. E., & Pedro-Carrol, J. L. (1993). Role of parent-child relationship in mediating the effects of marital disruption.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2, 1019-1027.
- Brown, T. A., Cash, T. F., & Mikulka, P. J. (1990). Attitudinal body-image assessment: Factor analysis of the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 135-144.
- Cash, T. F. (1990). *The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In Appendix. Body Image Disturbance, Assessment and Treatment (Thompson, T K.), Pergamon Press.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Cote, J. E., & Levine, C. (1988).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ego identity status paradigm. *Developmental Review*, 8, 147-184.
- Dignan, S. M. (1965).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476-477.
- Edward, W. J. (1996). A measurement of delinquency differences between a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sample: what are the implications?. *Adolescence*, 31(124), 973-989.
- Eric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1, 160-171.
- Eric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W. Norton & Co.
- Felson, R. G., & Zielinski, M. A. (1989). Children's self-esteem and parent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727-735.
- Gecas, V. (1971). Parental behavior and dimensions of adolescent self-evaluation. *Sociometry*, 34, 466-482.
- Gergen, K. J. (1971). *The concept of self*.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 cognitive 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mer, S. M.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1), 81-89.
- Hjelle, L. A., & Ziegler, D. J. (1976). *Personality theories*, McGraw-Hill Book Company, New York.
- Hoelter, J. (1984). Relative effects of significant others on self-evaluatio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7, 255-262.
- Kalish, R. (1975). *Late adulthood: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Monterey,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 (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159-187, New York: John Wiley & Sons.
- Margolin, L., Blyth, D. A., & Carbone, D. (1988). The family as a looking glass: Interpreting family influences on adolescent self-esteem from a symbolic interaction perspectiv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8, 211-224.
- Olson, D. H., Larsen, A. S., & McCubbin, H. I. (1982). Family Strengths. In D. H. Olson, H. I. McCubbin, H. Barnes, A. S. Larsen, M. Muxen, & M. Wilson (Eds.). *Family Inventories: Inventories used in a national survey of families*

-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St. Paul, MN: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Oshman, H., & Manosevitz, M. (1974). The impact of the identity crisis on the adjustment of late adolescent mal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 201-216.
- Richards, M. H., Gitelson, I. B., Petersen, A. C., & Hurtig, A. L. (1991). Adolescent personality in girls and boys: The role of mothers and fathers. *Psychology of Woman Quarterly*, 15, 65-81.
- Richardson, R., Galambos, N. M., Schulenberg, J., & Petersen, A. (1984). Young adolescents' perception of the family environment.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4, 131-153.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utter, M. (1985). *Studies of psycho-social risk: The power of longitudinal dat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lem, S. K. (1990). *Perceived body image, importance of ideal body image,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femal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Los Angeles.
- Sears, R. R. (1970). Relation of early socialization experiences to self-concepts and gender role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41, 267-289.
- Turner, W. L. (1990). *Ego identity development in black college students: The effects of self-esteem, ethnic identity and family environ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 Watson, M. F., & Protinsky, H. O. (1988). Black adolescent identity development: Effects of perceived family structure. *Family Relations*, 37, 288-292.
- Waterman, A. S. (1982). Identity development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An extension of theory and a review of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41-358.

(2005년 4월 19일 접수, 2005년 12월 12일 채택)